

# 박, 정수장학회 회견 안 하느니만 못했나

‘제2 과거사 논란’ ‘대선가도 발목’ 당내 비판

유족측 “박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수장학회 해법을 모색했지만 꾼인 매듭은 풀지 못한 채 역사인식 논란만 불러온 것을 놓고 당내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당 지도부와 쇄신과, 비박 인사들은 물론 친박계 인사까지 비판에 가세한 가운데 이현철 발언으로 불거진 과거사 논란 때와 유사하게 ‘참모진의 잘못된 보좌’, ‘의사소통의 폐쇄성’, ‘법원 판결 무시’라는 단어들이 등장했다.

이번 사안이 ‘제2의 과거사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박 후보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불통’ 이미지가 대선 가도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정치쇄신특위 이상돈 위원은 22일 CBS라디오에 출연, “실망을 넘어 걱정”이라며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에 있었던 일은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것으로, 현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시기인데 그 시절 조처를 두고 정당하다고 하게 되면 끝없는 논쟁을 또 야기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박 후보의 강압성 발언과 관련해 “어떤 참모가 핵심 관계 내용을 잘못 알렸을까”라는 질문

린 글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 “5·16쿠데타와 유신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그때 강탈한 남의 재산은 합법이라고 한다면 자질을 의심받는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발언과 관련, 당 밖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2일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강탈 논란을 부인한 대 대해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 “2012년 대통령 후보인 데도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창립자 고(故) 김지태 삼화그룹 회장의 유족은 지난 21일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에 대한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박 후보를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2일 서울 종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독재 유신 정수장학회 해체와 독립 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 고(故) 김지태 씨의 아들 김영철 씨가 발언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정치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문 후보는 22일 새로운 정치위원회(새정치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를 ‘정치쇄신 주간’으로 정하고 “민주당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고 저 개인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정당의 기득권도 내려놓겠다.”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며 “적어도 지역구는 200석으로,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의석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정치가 움켜쥔 기

한편, 진노(親盧·친노무현) 핵심

참모 9명의 선대위직 사퇴를 계기로 당내 비주류 측에서는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위한 무력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당장, 25일에 조국 서울대 교수와 도로회를 개최하는 등 자체적인 쇄신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와 문 후보에게 제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퇴진에 대해 이미 2선으로 물러난 상황인데다 인위적인 인적쇄신은 당내 분란을 가중시키고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후보는 전날 호남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과거에도 선거에 질 때마다 지도부가 바뀌었지만 문제기 해결되지 않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문, 정치개혁 드라이브

경선 후보 4인 첫 회동…이·박 거취 주목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 조정안도

## 박, 사퇴 재압박…최필립 선택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2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하면서 최 이사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전국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이 사퇴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전날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우회적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하자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사진이 잘 판단해서 해달라”는 박 후보의 말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니라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관계자들은 장학회의 명

칭 변경까지 요구한 박 후보의 전날 입장이 최 이사장의 사퇴를 우회 촉구한 것이었고, 이날 요청은 이를 더욱 직설적 어조로 거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캡프 측은 박 후보의 이날 분명한 요구로 최 이사장이 조만간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물밑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 안철수, 노동계 표심 공략

### 전당 조직 신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2일 노동 전당 조직을 신설하는 등 노동계 지지기반 넓히기에 나섰다.

안 후보 캠프는 이날 노동정책 제안과 노동계 소통 창구 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연대센터를 설치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노동연대센터는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모아서 합리적인 노동정책을 만들고 대타협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식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맡고 이수봉 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산별노조 출신 등 노동계 인사 30여 명이 운영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캡프에 조직이 들어선 것은 노동연대센터가 사실상 처음이어서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노동 현장에 대한 안 후보의 관심과 깊이를 가늠케 한다는 게 후보 측의 설명이다.

안 후보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포럼 ‘내일’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100여명을 훌쩍 넘었으나, 이들은 캠프 내부 인력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

최 이사장의 물밀 교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 전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캡프 측의 고민이다.

정수장학회는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 후보의 입장발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대센터의 대표는 이용